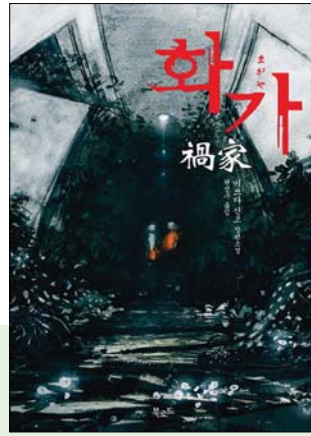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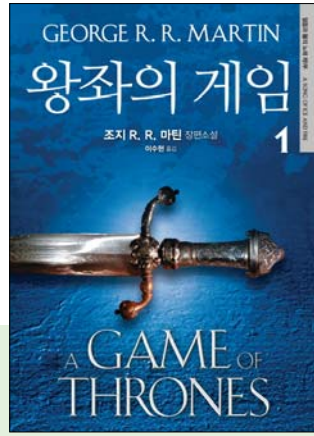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에 들고 갈 만한 책을 골랐다. 해변에서 머리 아픈 철학서나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정통 문학을 들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행지에 가서 여행 책을 볼 수도 없고, 자기계발서를 읽는 건 더 별로다. 그래서 판타지, 호러, 범죄물 등 장르 소설들을 준비했다. 책장도 술술 넘어가고 산뜻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책들이다.



여름 휴가철

판타지 '왕좌의 게임' · 호러 '화가' · 범죄물 '무통' ...

# 장르소설 보고 느끼고 즐기자

◇바로그 드라마의 원작... '왕좌의 게임:얼음과 불의 노래' 1, 2권  
출판사 은행나무에서 '왕좌의 게임' 출판 20주년 기념 전면 개정판을 내었다. 바로 미국드라마 '왕좌의 게임' 덕분이다. 한 번 빠져들면 못 헤어 나온다고 소문난 드라마인데, 소설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가상의 대륙 웨스테로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권력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다룬 작품으로 이번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번역으로 거듭나며, 용어 및 등장인물명의 대폭 정정이 이뤄졌다.  
다양한 인물들과 산발적으로 벌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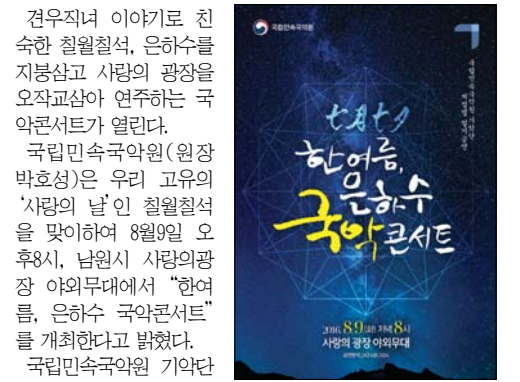
사건들 탓에 초반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조금만 견디면 이 판타지 세계로 빠져드는 건 순식간이다. 책 사이에 인물 관계도가 들어있으니 참고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일본 호러 소설 본 적 있나?... '화가'  
호러와 미스터리, 사실과 허구의 절묘한 융합을 통해 극단의 공포를 이끌어내는 호러 미스터리의 대가 미쓰다 신조의 소설 '화가'는 뱀신과 빙의를 소재로 한 미쓰다의 전작 '홍가'에 이어 기시감과 살인사건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다.

'화가'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소년 코타로가 할머니와 함께 낯선 마을로 이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코타로에 얽힌 기현상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공포를 뛰어넘는 또 다른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만끽할 수 있다. 또 심장을 옥죄는 공포, 섬뜩한 클라이맥스, 강렬한 반전은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다.  
◇치밀한 메디컬 범죄물... '무통'  
'무통'은 고베의 한 주택가에서 일가 족 네 명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메디컬 작가이자, 현역 의사 작가인 구사카베 요의 이 작품은 글 안에 단순히 살인사건만 담는 것이 아니라 '심신상실자의 범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제39조의 문제점과 환자의 걸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병명을 알아맞히는 두 천재 의사의 대결, 천천히 무통증, 침두증, 조현병 등 의학적 요소까지 두루 담아낸 종합 엔터테인먼트 소설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무통'은 2015년 후지 TV 드라마로도 제작돼 화제가 될 만큼 일본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다. /김민근 기자

## 은하수를 지붕삼아 펼쳐지는 칠월칠석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

국립민속국악원, 9일 남원 사랑의광장서 '한여름, 은하수 국악콘서트' 개최



견우직녀 이야기로 친숙한 칠월칠석, 은하수를 지붕삼고 사랑의 광장을 오작교삼아 연주하는 국악콘서트가 열린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은 우리 고유의 '사랑의 날'인 칠월칠석을 맞이하여 8월9일 오후8시, 남원시 사랑의광장 야외무대에서 "한여름, 은하수 국악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은 지난 2014년과 2016년, 정기공연을 통해 관소리와 민요를 관현악연주로 풀어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공연 레퍼토리 중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4곡을 엄선하여 연주하며, 지휘는 이화여자대학교 원영석 교수가 맡는다.  
조원행 작곡의 경서도민요를 위한 관현악 "청(淸)"을 시작으로 국악계의 소품으로 불리며 최근 국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작곡가 박경훈 작곡의 동부민요를 위한 관현악 "메나리소리", 화려한 스케일과 웅장함을 자랑하는 이경섭 작곡의 적벽가를 위한 관현악 "할", 춘향가를 위한 관현악 "이리오너라"를 이어서 들려준다. 특히 춘향가를 위한 관현악 "이리오너라"에서는 단오날 오작교에서 처음 만난 춘향과 몽룡의 사랑이야기를 무용과 함께 선보여 한여름 밤의 낭만을 전할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는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고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 신모듬 3악장 중 놀이"로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느끼게 하는 무대를 선사 할 것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정순왕후 서사 무용극 '하늘연인' 성황리 마쳐

사단법인 한옥마을사람들이 주관한 정순왕후 서사 무용극 '하늘연인'이 7월 28일 저녁 7시 정읍시의 자매도시인 남양주시에서 성황리에 공연됐다.  
남양주시 진접읍 크나새마을에서 펼쳐진 공연에는 이강석 남양주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시민 등이 대거 찾아 공연장 전 좌석(320석)을 꽉 채워 공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공연을 가진 남양주시는 정순왕후의 능(사릉)이 있는 도시로, 정읍시와 남양주시는 지난해 10월 자매결연을 가졌다.  
시는 "정순왕후의 출생지(정읍 칠보)인 정읍에서 탄생시킨 작품을 왕후가 잠들어 있는 남양주에서 공연했다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매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 측면에서도 뜻깊다"고 평가했다.  
'하늘연인'은 조선시대 제6대 왕 단종의 왕비인 정순왕후(정읍 칠보 출신)의 비극적인 일생과 단종에 대한 일편단심 아련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서사무용극이다.  
서사 무용극이라는 장르를 유지하면서 배우들의 목소리와 노래를 담은 음악과 한국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한옥이 그려진 배경막에 파사드 영상을 도입하여



다채로운 영상을 펼쳐, 관객들에게 이해와 재미를 더해 주었다.  
또 본 공연에 앞선 식전 공연으로 정읍 시립농악단이 선반 사물 판굿과 12발 삼모 놀이를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남양주시 이 아무개는 "남양주에 정순왕후의 능인 사릉이 있어 평소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공연을 통해 정순왕후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깊어

졌다"며 "이를 계기로 정읍시와 남양주시가 더욱 돈독한 우의를 다지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상생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하늘연인'은 2016년 한옥자원활용 아간상설공연 전북도 공모 선정사업으로, 오는 10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정읍시 고백문화체험관(산외면 김동수 가옥 옆)에서 공연(유료)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세계 희귀동물 특별전'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서

남원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지난달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세계희귀동물·특별전'이 열렸다.  
이번 특별전에는 사막여우와 미어캣, 스컹크와 알비노버미즈피아핀, 청금강영무새 등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과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 유충 등을 만져볼 수 있는 딱정벌레체험과 물방개와 물뱀뱀이, 게이재비와 장구애비 등 다양한 수서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수서곤충체험이 마련되어 아이들을 위한 생태놀이터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희귀곤충표본은 실제 곤충으로 만든 작품이 맞지 눈을 의심하게 만들며 사람 손바닥보다 큰 달라타타가시데벌레, 가장 싸움을 잘하는 키톤장수풍뎅이, 꼬기리뱀을 먹고 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미누스왕소똥구리, 새처럼 큰 날개를 가진 버드왕나비 등은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계희귀동물특별전은 전 연령대가 입장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며, 전시관입장객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외주제작사도 방송심의 간접광고 위반 과징금 최대 5천만원

외주제작사도 방송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주제작사를 방송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한 '방송법' 개정 후속조치의 하나다.  
방송심의위는 "부적절한 간접광고로 인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와 시청권 침해를 막기 위해 외주제작사에 관련 심의규정 준수 의무도 함께 부과할 것"이라며 "간접광고 관련 위반 시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심의위는 앞으로 외주제작사가 판매한 간접광고의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제작책임이 있는 외주제작사, 자체심의와 편성 등 책임이 있는 방송사업자, 양자 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해 방송 중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간접광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간접광고 상품이나 상품명 등을 부자연스럽게 노출하거나 출연자 대사를 통해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면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와 심의규정 준수 의무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김민근 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 <2016년 8월 1일>

<p><b>▷쥐띠</b> 46년생: 일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으며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운. 60년생: 노력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2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주의하라. 구설수가 따른다. 84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먼저 커피라도 배풀어라.</p>	<p><b>▷소띠</b> 49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에 신경써라. 61년생: 매사가 어긋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럴때에는 잠시 쉬어가기 좋겠다. 73년생: 지금의 고생은 후에 결실로 다가올 것이다. 85년생: 동기간과 함께하면 힘든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p>	<p><b>▷호랑이띠</b> 50년생: 남성은 여성의 조언을 구하라. 말속에 덫이 있다. 62년생: 타인의 이목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74년생: 손재수와 실물수가 따르는 운. 86년생: 이성과 함께 진행하면 사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다.</p>	<p><b>▷토끼띠</b> 51년생: 놀리거나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려라. 63년생: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운. 75년생: 처리하는 일이 잘 되다가 중간에 막히게 된다. 87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타협하라.</p>
<p><b>▷용띠</b>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자가 나타나니 주위를 살펴 보고 경계하라. 64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성사된 일이 발생한다. 76년생: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면 흔쾌히 들어줄 것. 88년생: 다투었던 사람과의 화해를 도모하기에 좋은 운.</p>	<p><b>▷뱀띠</b> 53년생: 배물론 덕이 쌓이니 후에 반드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65년생: 경쟁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운. 77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혼자 해결해나가야 한다. 89년생: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다.</p>	<p><b>▷말띠</b> 54년생: 금전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니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66년생: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뒷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8년생: 경이하게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90년생: 정신이 두렷하지 않으니 매사에 집중력을 잃지 마라.</p>	<p><b>▷양띠</b> 55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하는 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마라. 67년생: 계약을 하거나 문서를 주고 받기에 좋은 운. 79년생: 건강에 대해 신경써라. 91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p>
<p><b>▷원숭이띠</b> 56년생: 다른 사람의 일어 나서지 말라. 68년생: 뒷사람에게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운. 80년생: 자신있던 일에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겸손은 필수다. 92년생: 손이래 사람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다. 사심없는 행동이 니 마음쓰지 마라.</p>	<p><b>▷닭띠</b> 57년생: 매사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는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겠다. 69년생: 작은 성과를 얻으려는 자세는 좋은 운. 81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 93년생: 시비가 따르니 일시적인 것이나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라.</p>	<p><b>▷개띠</b> 46년생: 손윗사람에게 신경써야 하는 운. 58년생: 금전운이 상승되는 운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70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니 먼저 손을 내밀어봐라. 82년생: 처음에는 서로 뜻이 맞지않고 기분상할 일이 생기나 후반에는 풀리게 된다.</p>	<p><b>▷돼지띠</b> 47년생: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 59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신경을 것. 71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발생한다. 83년생: 구설수가 생기기도 하니 언행에 주의하라.</p>